

2013. 8. 14.

연중 19주, 성 막시밀리아노 콤베 축일

주여, 이제는 여기에

김민기 곡

Am Dm E Am C E
 열 어 불 은 저 하 늘 열 어 불 은 저 별 판
 아 - 거 리 여 - 외 - 로 운 거 리 여

Am Dm F B E
 태 - 양 도 빛 들 - 일 어 아 캄캄 한 저 가 난 - 의 거 리
 거 절 당 한 손 길 - 들 의 아 캄캄 한 저 곤 옥 - 의 거 리

Am Dm G C
 어 디 에 서 왔 나 얼 굴 여 원 사 람 들
 어 디 에 있 을 까 천 - 국 은 어 디 에

E Am B E Am D G
 무 열 찾 아 헤 매 이 나 저 눈 저 매 - 트 손 길 -
 죽 음 저 편 푸 른 숲 에 아 거 기 에 - - 있 을 까 -

C Dm D G7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C E F D G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여 기 에 우리 와 함 께

C Dm A D G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C E F C F E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우리 와 함 께 하 소 서

개회예식

1. 시작송가

(계)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응)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계) 하느님, 우리를 이 구원 하소서

(응)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 주소서

(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응)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 멘

은혜로운 빛이여

은혜로운 빛 이 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 이 여

거룩하시고 복되 시 도 다 주 예수 그리스 도 여

해 저 무는 이때 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 보 . 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

나 이 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이 - 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오 . 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 여 온 세상으로부 . 터 영광 받으 소 . 서

말씀의 전례

2. 오늘의 시편

119:121-144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으니, ○ 억누르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 당신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126 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으니 ○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 우둔한 자들도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 나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꺾이지 않게 하시고 ○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내 주소서. ○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137 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

하니 ○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 나에게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고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3. 성서독서

마르코(마가) 10: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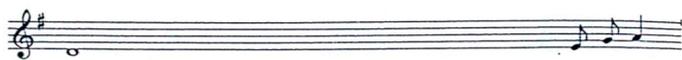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

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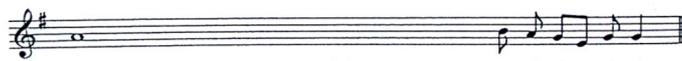
-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 독서 후 송가

어린양 송가



1.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2.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	하셨습니다
3. 당신은 죽임을 당하	셨으며
4.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	부터
5.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6. 그러므로 옥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되신 그리스도	께서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만한	분이십니다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 죄	값을 치루어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1.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2.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3.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며, ○ 당신의 피로 우리 죄 값을 치루어,
4.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5.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

을 이루게 하셨고, ○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옥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되신 그리스도께서, ○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5. 말씀 나눔

6. 대도

성찬의 전례

7. 평화의 인사

+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시다.

8. 봉헌

+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어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집전자는 성찬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의 성찬기도를 드린다.

9. 성찬기도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으며, 생명의 샘이시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또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며, 경이로운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뵈오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 아멘

10. 주의 기도

†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11. 성찬의 나눔

†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 - 느 님 어 린 양 세 상 의 죄 - 를 없 애 시 는 주 여
 우 리 를 불 쌍 히 여 기 소 서
 하 - 느 님 어 린 양 세 상 의 죄 - 를 없 애 시 는 주 여
 우 리 를 불 쌍 히 여 기 소 서
 하 - 느 님 어 린 양 세 상 의 죄 - 를 없 애 시 는 주 여
 우 리 에 게 평 화 를 주 - 소 서

성찬의 초대

빵을 떼는 후에 주집전자는 다음 초대의 말을 한다.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

성체와 보혈을 나눌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스도의 성체 / ◎ 아멘
 † 그리스도의 보혈 / ◎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S. Toollan

1. 예 수 님 앞 에 나 와 떡 과 포 도 주 생 명 의 양 식 우 리
 함 께 나 늘 때 예 수 님 우 리 불 리
 새 나 리 열 어 주 네 너 희 를 살 리 리 라 너 희 를 살 리 리
 라 마 지 막 그 날 에 너 희 를 살 리 리 라

1. 생명의 진리 이 떡, 죄를 사하는 약속의 이 잔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안에 살아가리 이 세상 바로 살리
2. 인자의 삶은 생명, 그의 흘린 피 생명의 약속
 그 살 그 피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오직 한 길
3. 주님은 부활이요 또한 세상의 생명이시니
 이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네 그 생명 영원하리
4. 예수님 우리 위해 여기 사람의 아들로 오사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켜주리

12. 영성체 후 기도

† 기도합시다.

◎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복된 성인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를 기념하여 사랑의 성사를 거행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인들과 상통하며, 그리스도의 신비하신 몸 안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어 성인들이 보이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파송 예식

13. 축복기도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14. 파 송

†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옳은길 따르라 의의 길을

H. E. Nichol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옳은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길
2.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3.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4.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길 많은 백성을 구한길



이길따라서 살-길을 온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갈길
 길과 건리요 창-생명네 창검을 부수고--다 따르라 화평왕
 내 주예수를 보-내 선창 사랑의 하나님--만 백성이 따를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세상이 마침내--이 건리에 살겠네



어둔 밤 지나서 동 뜬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